

절순문안과 취혈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침구대성』을 중심으로 -

이 준 무 · 김 택 룰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침구경혈학교실

A study on point-location by finger-sensation.

- within the context of 『Zhenjiudacheng』 -

Joon-Moo Lee, Taek-Ryul Kim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Sangji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The skill of locating acupoints accurately is an essential part of acupuncture treatment. Bone-scale has been used as a basic coordinates to locate acupoints and has be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of locating acupoints. This study was designed to stress the importance of QieXunMenAn, which means pressing and rubbing softly the surface around the part pointed with proportional method, in locating acupoints.

Methods and results : All expressions related with QieXunMenAn, among the descriptions of acupoint locations in 『Zhenjiudacheng』, were investigated. The activity of QieXunMenAn has been regarded as an important method of locating acupoints since Neijing.

QieXunMenAn means pressing and rubbing softly the surface around the part pointed with proportional method. It is a process of locating acupoint in detail by finger-sensation after locating the point with proportional method. Xianzhang, Dongmaiyingshou, and Wanwanzhong have been used to describe how to locate acupuncture-point through QieXunMenAn procedure. Xianzhong means a small depression or a pit on the surface of the body. Wanwanzhong describes that it feels very soft and tender. Descriptions related with QieXunMenAn procedures were found in around 87% of acupoint locations, thus stressing out its procedure.

Conclusions : Bone-scale and QieXunMenAn do not mean different methods but the procedures that should be both performed every time when we locate most of the acupoints. Until recently, QieXunMenAn has been paid less attention that it should be. QieXunMenAn as well as bone-scale may be necessary to help locate acupoints accurately.

Key words : Acupoint, QieXunMenAn, Zhenjiudacheng

I. 서 론

일침·이구·삼약이라는 말처럼 한의학의 질병

치료에 있어서 침술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침술에 대해 『영추』 「구침십이원」에서는 ‘今夫五臟之有疾也, 譬猶刺也, 猶汚也, 猶結也, 猶閉也. 刺雖久, 猶可拔也. 汚雖久, 猶可雪也. 結雖久, 猶可解也. 閉雖久, 猶可決也.’

· 교신저자: 김택룰,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97-5 수강한의원,

Tel. 033-638-1236, E-mail: songdam@empal.com

· 투고: 2005/12/02 · 수정: 2005/12/13 · 채택: 2005/12/19

或言久疾之不可取者，非其說也。夫善用鍼者，取其疾也，猶拔刺也，猶雪汚也，猶解結也，猶決閉也。疾雖久，猶可畢也。言不可治者，未得其術也。¹⁾ 라고 했다. 침을 잘 놓는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함을 지적한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여 ‘침요득술(鍼要得術²⁾)’이라고 하였다.

침술을 얻는다는 것은 첫째 선혈의 안목을 높이는 것과, 둘째 정확한 취혈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선혈의 안목을 높이는 것은 한의학 이론을 깊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정확한 취혈을 하는 것은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많은 연습과 경험이 중요할 것이다.

『영추』 「구침십이원」에 「所言節者，神氣之所遊行出入也，非皮肉筋骨也。³⁾」라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해부학적인 위치에만 의존하여 혈위를 찾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신기가 유행출입하는 곳, 즉 정확한 혈을 취하기 위해서는 골도에 근거한 분촌으로 위치를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으로 직접 신체의 표면을 탐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영추』 「배수」에 黃帝가 岐伯에게 배수혈에 대해 묻자, 岐伯이 「岐伯曰，背中大脈，在杼骨之端，肺脈在三椎之傍，心脈在五椎之傍，膈脈在七椎之傍，肝脈在九椎之傍，脾脈在十一椎之傍，腎脈在十四椎之傍。皆挾脊相距三寸所，則欲得而

驗之，按其處，應在中而痛解，乃其驗也。⁴⁾」라고 대답한다. 여기에서 ‘按其處’라는 것은 손으로 혈위를 탐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당나라 孫思邈의 『천금요방』에 ‘言人有病痛即令捏上 若裏⁵⁾當其處 不問孔穴 即得便快成痛處 即云阿是 灸刺皆驗 故曰 阿是穴也。⁶⁾」라고 했다. ‘편쾌성통처(便快成痛處⁷⁾)’한 곳을 아시혈이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신체의 표면을 안압(按壓)하여 혈을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

송나라 王執中의 『침구자생경』에 ‘以手按之病者快然⁸⁾」이라 하였다. 손으로 눌러보는 행위와 관련된 표현이다.

또 『영추』 「경근」에 보면 12경근의 치료 중에 ‘수소음지근’을 제외한 나머지 ‘족태양지근·족소양지근·족양명지근·족태음지근·족소음지근·족궤음지근·수태양지근·수소양지근·수양명지근·수태음지근·수심주지근’ 등은 모두 번침(燔鍼)으로 겁자(劫刺)를 하는데, ‘以痛爲輸.⁹⁾」라고 했다. 역시 손으로 눌러보는 행위와 관련된 표현이다.

이렇게 손으로 혈위를 탐색하는 것 즉 ‘주의 깊게 손으로 혈을 만져보아 찾는 행위’는 취혈에 있어 골도와 더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44년에 저술된 허임의 『침구경험방』 서문에 ‘自古用手之法이 非不詳盡이로대 後人이 未達其意하고 徒務量穴之分寸하며 不曉動脈之應

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 傳統文化硏究會. 1999 : pp.30-31

2) 許浚. 原本東醫寶鑑. 서울 : 南山堂. 1989 : p.758

* 鍼要得術 : 침의 요지를 득학(得學)이라고 하지 않고 득술(得術)이라 한 것은 선혈보다는 취혈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의학(醫學)보다는 의술(醫術)이 조금 더 테크닉적인 면을 강조한 것과 같다.

3) 洪元植 譯. 前掲書 : p.27

4) 洪元植 譯. 前掲書 : p.355

5) 裏 : [동의보감] p.755에는 果로 되어있다.

6)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 p.898 :

7) 便快成痛處 : 여기서 ‘成’은 ‘或’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상시대 원전의학사학교실 이용범교수.

8) 王執中. 鍼灸醫學典籍大系 第8卷 鍼灸資生經. 大阪 : コノディック. 昭和54 : p.172 : 千金云人有老少體有長短膚有肥瘦皆須精思商量準而折之又以肌肉文理節解絳會宛陷之中及以手按之病者快然如此子細安詳用心者乃能得之耳許希亦云或身短而手長或手長而身短或胸腹端或胸腹長或瘦或肥又不可以一概論也

9) 洪元植 譯. 前掲書 : pp.155-165

절순문안과 취혈의 관계에 대한 고찰

手하고 不敢對病要穴而亂刺諸經하야 未祛病源하고 徒泄眞氣하니¹⁰⁾라 하였는데, 240년 전의 사들이 취혈할 때 골도에 근거한 분촌에만 신경을 쓰고, ‘동맥응수’ 등 주의 깊게 손으로 혈을 만져보아 찾는 행위는 소홀히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골도만으로 취혈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명대 이전의 침구에 관한 학술경험과 지식을 총괄한 저작이며¹¹⁾, 현재 침구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楊繼洲의 『침구대성』을 통하여 ‘주의 깊게 손으로 혈을 만져보아 찾는 행위’에 대한 설명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나를 고찰하여 정확한 취혈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일러두기

1. 일반적으로 ‘선혈¹²⁾’과 ‘취혈¹³⁾’은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선혈’은 질병에 맞는 혈을 선택하는 의미로, ‘취혈’은 선택된 혈위를 찾는 의미로 정의한다.¹⁴⁾
2. 한자는 정자를 원칙으로 하였다. 본문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였고 의미가 혼동될 우려가 있거나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에 한자를 병기하였다.

3. 인명은 한국인의 경우 한글로, 중국인의 경우는 한자를 사용하였다.
4. 참고문헌은 순서대로 반 괄호로 묶어 위첨자로 표기했고, 인용문과 주는 원문자를 사용하여 각주로 나타냈다.
5. 서명은 『』에 묶어 넣었고, 편명은 「」에 묶어 넣었다.
6. 본문의 서명은 읽기 쉽도록 한글로 표기하였고, 각주의 서명은 책 제목을 그대로 표기했다.

7. 각주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하였다.

① 인용서 범례 [저자. 서명. 출판도시 : 출판사명. 출판연도 : p.인용 쪽수]

* 다만 대성문화사에서 출판된 『說文解字注』는 영인본으로 출판연도를 명시하지 않아 생략하였다.

② 인용 쪽수가 여러 장일 때는 pp.00-00

③ 바로 전의 인용서일 경우 [上掲書 : p.인용 쪽수]

④ 앞에 나온 인용서일 경우 [저자. 前掲書 : p.인용 쪽수]

II. 본론 및 고찰

1. 절순문안(切循捫按)의 의미

『의학입문』 비경주기(飛經走氣)에 ‘切而散之 爪而下之 彈而努之 捫而循之 動而伸之 椎而按之 通而取之 搖而出之’라고 하였고, 그 주에 ‘切者 以

10) 許任. 鍼灸經驗方. 서울 : 圖書出版 鼎談. 1999 : 서문

11)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 p.312

12) 배병철.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 成輔社. 2000 : p.1094 : ‘選穴法 : 病情에 근거하여 효과가 있는 穴을 選取하여 치료하는 방법이다. 임상에서 局部選穴·鄰近選穴·遠道選穴·循經選穴·辨證選穴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13) 上掲書 : p.2330 : ‘取穴法 : 選穴法이라고도 함. 병증에 따라 효과적인 穴을 取하는 방법으로서 局所取穴法·循經取穴法·鄰近取穴法 등이 있다. 局所取穴法은 병이 있는 국소를 取穴하는 것이고, 循經取穴法은 병이 있는 臟腑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經脈에서 取穴하는 것이며, 鄰近取穴法은 그 병에 효과적인 다른 經脈에서 취혈하는 것이다.’

14) 혈위를 찾는 과정을 ‘탐혈’이라고 하기도 한다.

手爪 搯按其所鍼之穴 上下四傍 令氣血散.¹⁵⁾ ‘捫者 摩也 如痛處未除 卽於痛處捫摩 使痛散也 復以飛鍼 引之 除其痛也 又起鍼之時 以手按其穴 亦曰捫. ○ 循者 用手於所鍼部分 隨經絡 上下 循按之 使氣往來 推之則行 引之則至 是也.¹⁶⁾ ‘按者 搯也.¹⁷⁾’라 하였다. 『동의보감』 침보사범에는 ‘補虛者 必先捫而循之 切而散之 推而按之 彈而怒之 抓而下之 通而取之.¹⁸⁾’라 하였다. ‘절(節)’, ‘조(爪)’, ‘탄(彈)’, ‘문(捫)’, ‘동(動)’, ‘추(椎)’, ‘통(通)’, ‘요(搖)’, ‘문(捫)’, ‘순(循)’ 등은 각각 독립된 용어로 사용되어 행침할 때 보사에 의해 행기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절순(切循)’ 2자가 동시에 사용된 것은 『소문』 「삼부구후」¹⁹⁾, 『영추』 「주비」²⁰⁾, 『영추』 「음양이십오인」²¹⁾에 나타나며 진단이나 치료 방법을 이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절순문안(切循捫按) 4자가 동시에 사용된 것은 『영추』 「경수」²²⁾편에 나타나고 있지만 역시 각각의 의미가 독립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절(切)”, “조(爪)”, “탄(彈)”, “문(捫)”, “동(動)”, “추(椎)”, “통(通)”, “요(搖)”, “문(捫)”, “순(循)” 등은 독립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사전적인 의미로 ‘주의 깊게 손으로 혈을 만져보아 찾는 행위’를 나타낼 수 있는 적합한 단어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문(捫), 순(循), 안

(按), 절(切)이 그것이다.

문(捫) :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더듬다, 찾다.²³⁾

순(循) : 어루만지다, 위무(慰撫)하다.²⁴⁾

안(按) : 누르다. 어루만지다, 쓰다듬다. 주무르다, 문지르다.²⁵⁾

절(切) : 문지르다. 누르다. 진맥하다.²⁶⁾

이 ‘문순안절(捫循按切)’은 발음하기에 적합하며 비록 다른 의미로 쓰이긴 했으나 내경에 사용된 바가 있는 ‘절순문안(切循捫按)’으로 조합되는 것이 가장 거부감을 덜 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최종적으로 ‘절순문안(切循捫按)’을 선택하게 되었다.

‘절순문안(切循捫按)’이 동시에 하나의 의미로 쓰여 ‘주의 깊게 손으로 혈을 만져보아 찾는 행위’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 후에 다른 의미로 쓰인 옛 문헌이 발견된다면 이 용어를 대체할 용어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끝도의 의의

『영추』 「경수」에 황제가 사람은 각각 생긴 것이 다른데 도량(度量)은 어떻게 정하는지 묻자, 岐伯이 ‘其可爲度量者, 取其中度也, 不甚脫肉而血氣不衰也. 若夫度之人, 瘠瘦而形肉脫者, 惡

15) 李梴. 新校編註醫學入文(上).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 p.300

16) 上揭書 : pp.300-301

17) 上揭書 : p.301

18) 許浚. 前揭書 : p.757

19) 洪元植 譯. 前揭書 : p.135 : 必審問其所始病, 與今之所方病, 而後各切循其脈

20) 洪元植 譯. 前揭書 : p.237 : 故刺瘡者, 必先切循其下之六經

21) 洪元植 譯. 前揭書 : p.423 : 按其寸口人迎, 以調陰陽, 切循其經絡之凝滯, 結而不通者, 此於身皆爲痛癢, 甚則不行, 故凝滯.

22) 洪元植 譯. 前揭書 : p.153 : 岐伯答曰, 其可爲度量者, 取其中度也, 不甚脫肉而血氣不衰也. 若夫度之人, 瘠瘦而形肉脫者, 惡可以度量刺乎? 審切循捫按, 視其寒溫盛衰而調之, 是謂因適而爲之眞也.

23) 上揭書 : p.793

24) 上揭書 : p.688

25) 上揭書 : p.784

26) 동아출판사편집국. 동아 새 漢韓辭典. 서울 : 동아출판사. 1993 : p.289

절순문안과 취혈의 관계에 대한 고찰

可以度量刺乎?²⁷⁾라고 대답했다. 당시 사람들 중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너무 마르지도 너무 뚱뚱하지도 않은 보통사람을 기준으로 하고, 그 기준을 근거로 자침할 사람의 비수(肥瘦)에 따라 촌척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도량의 가장 보편적인 것이 뼈를 도량하는 것인데, 골도라고 한다.

골도라는 말은 『소문』 「통평허실론²⁸⁾」에 처음 나오며 『영추』 「골도편」에 자세히 소개된다. 「골도편」에 「黃帝曰, 願聞衆人之度, 人長七尺五寸者, 其骨節之大小長短各幾何?²⁹⁾」라고 묻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서의 7척5촌을 지금의 단위로 보면 149.325cm이 되는데 이것은 『영추』 「골도편」에서 사용된 길이 단위를 주나라 시대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³⁰⁾ 즉 「골도편」이 쓰일 당시의 중도(中度)가 되는 사람의 키는 150cm정도라고 생각된다. 이 질문에 대해 伯高가 인체의 각 부분에 대한 촌척수를 대답한다. 머리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팔길이, 다리길이 등등의 촌척수가 나열된다. 그런데, 그 당시 중도(中度)인 사람과 현대 한국의 평균적인 사람

과 비교하면 키뿐만 아니라, 차이가 나는 것이 또 있는데, 예를 들면 곡골에서 신궤까지의 촌척수이다. 「골도편」에는 「髑髏以下至天樞長八寸, 過則胃大, 不及則胃小. 天樞以下至橫骨, 長六寸半, 過則迴腸廣長, 不滿則狹短.³¹⁾」라고 하고 있는데, 현대 한국인은 이와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³²⁾ 청나라 시대의 『침구집성』에서 廖潤鴻은 『신응경』을 인용하면서 「腹部寸: 自中行心蔽骨下至臍共折作八寸人若無心蔽骨者取岐骨下至臍心共折作九寸○臍中至毛際橫骨折作五寸取之.³³⁾」라고 했는데, 한국인의 체형과는 더욱 달라진다. 같은 1촌이라도 이 두 부위의 실제 길이는 다르다. 즉 골도의 분촌은 실제 길이가 아니라 기준점과 기준점사이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침구대성』에 수태음폐경의 극혈인 공취가 「去腕上七寸³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완관절에서 21cm떨어진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관절에서 주관절까지를 12등분하여 완관절에서 7/12이 되는 곳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남녀노소·대소장단을 불문하고 골도는 같은 부위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7) 洪元植 譯. 前掲書 : p.153

28)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 傳統文化硏究會. 1993 : p.178 : 帝曰, 形度·骨度·脈度·筋度, 何以知其度也?

29) 洪元植 譯. 前掲書 : p.167

30) 강쇄빈. 경전침구학. 서울 : 一中社. 2000 : pp.169-170 : 靈樞「骨度」에서 사용한 길이단위는 주(周)시대의 길이단위라고 본다. 「표 24」

시대	백분비율	1척에 해당하는 길이(Cm)	현재의 1尺과 비교한 값
黃帝	100	24.88	0.7464
虞	100	24.88	0.7464
夏	100	24.88	0.7464
商	125	31.10	0.9330
周	80	19.91	0.5973
秦	0.9分之100	27.65	0.8295
漢	0.9分之100	27.65	0.8295

31) 洪元植 譯. 前掲書 : p.168

32) 참고 사이트 : <http://sizekorea.ats.go.kr>

33) 廖潤鴻. 鍼灸集成. 北京 : 中國書店. 1986 : p.3

34) 楊繼洲. 校訂註解鍼灸大成.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 p.253

경우에 따라 뚜렷한 지표는 골도보다 더욱 중요할 수 있는데, 명나라 吳崑은 『침방육집』에서 ‘諸穴有眉髮筋骨約紋陷下肉際者，卽取之，不必度也.’³⁵⁾라고 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특별한 지표가 없는 한 골도는 취혈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설명이 된다.

3. 『침구대성』의 의학적 고찰 및 의의

『침구대성』은 1601년 楊繼洲에 의해 저술된 침구관련 종합의서이다. 楊繼洲는 명나라 정사에는 전하지 않는다. 繼洲의 이름은 濟時이고 선조들은 절강 삼구현(지금의 구현 남향 육도 양촌)에 살았으며, 명 가정(嘉靖)에서 만력(萬曆)연간의 사람이다.³⁶⁾ 만력연간에는 태의원 어의를 지내는 등, 4-50여 년간 의업에 종사였다. 그가 편찬하였다고 알려진 『침구대성』은 양씨 가문에서 전래되던 『위생침구현기비요』를 기초로 하여, 『소문』, 『난경』, 『자오경』, 『동인침구경』, 『천금방』, 『외대비요』, 『금난순경』, 『침구잡설』, 『십사경발휘』, 『신응경』, 『침구취영』 등에 자신의 임상경험을 보태어 종합적으로 편집한 서적이다.³⁷⁾ 『침구대성』은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의 『내경』, 『난경』편에는 침구와 관련된 원문과 주석이 있고, 권2-3에는 역대 가부(歌賦) 약 30여수가 기재되어있으며, 권4-10에는 역대의 의가의 주요 보사수법, 십사경과 기경팔맥 및 각 혈의 부위, 주치, 침구법 및 유명 의가의 침구법이 기재되어있다. 현재 전국 한의과대학에서 교

재로 쓰이고 있는 집문당 『침구학 상』³⁸⁾의 제2편 각론에 나타나는 혈위 설명 중 ‘부위’항을 보면, 『침구대성』의 혈위 설명을 인용하고 있다. 또 경혈학의 실습교재로 쓰이고 있는 정문각의 『도해경혈학』³⁹⁾에서도 각 혈위 설명의 ‘부위’항에 『침구대성』의 혈위설명이 인용되고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도 『침구대성』의 혈위 설명이 기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침구대성』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였다.

4. 『침구대성』의 혈위 설명구조

『침구대성』의 혈위 설명구조를 살펴보면 골도에 근거한 분촌부분과 절순문안(切循捫按)하여 찾아야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三里：膝下三寸，胫骨外廉大筋內宛宛中，兩筋肉分間，舉足取之，極重按之，則跗上動脈止矣.’⁴⁰⁾라고 되어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의 전혀 다른 혈위 설명 방법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슬하 3촌’이라는 설명이고, 또 하나는 ‘완완중(宛宛中)’이라는 설명이다. 이 두 가지 설명 중에서 ‘슬하 3촌’이라는 것은 골도에 근거한 분촌으로 족삼리를 찾기 위한 지표를 설명한 것이고, ‘완완중(宛宛中)’이라는 표현은 혈위를 절순문안(切循捫按)하여야 알 수 있는 설명이다. 비록 설명의 구조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 『영추』 『경수』에 ‘外可度量切循而得之’⁴¹⁾라 하였듯이 이 두 가지가 서로 별개인 것은

35) 吳崑. 鍼方六集校釋. 서울 : 醫聖堂. 1993 : p.19

36) 郭世余. 中國鍼灸學.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 p.252 : 楊繼洲, 明正史無傳. 繼洲名濟時, 祖居浙江三衢縣(今衢縣南鄉六都陽村), 爲明嘉靖至萬曆年間人.

37) 이수홍·윤종화·김갑성. 양계주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제15권 제1호. Vol.15, No.1, June, 1998.

38)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編著. 鍼灸學. 서울 : 집문당. 1988.

39) 전국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편저. 도해 경혈학. 서울 : 정문각. 2002.

40) 楊繼洲. 前掲書 : p.270

41) 洪元植 譯. 前掲書 : p.151

아니다. 두 설명으로 혈을 찾는 것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족삼리의 대략적인 혈위는 슬하 3촌 정도인데, 그 슬하 3촌 되는 부분을 만져보아 완완(宛宛)한 곳이 정확한 혈위가 된다는 뜻이다.

5. 혈위 설명에서 절순문안(切循捫按)과 관련된 표현

(1) 함중(陷中)

사전적 의미로 ‘함(陷)’자를 살펴보면, 『설문해자주』에 ‘陷：高下也。高下者，高與下有縣絕之勢也。高下之形曰陷。故自高入於下亦曰陷。義之引申也。易曰。坎，陷也。謂陽陷也。凡深沒其中曰陷。’⁴²⁾라고 했고, 『이상대옥편』에는 ‘빠질 함⁴³⁾’이라 했으며, 『동아새한한사전』에는 ‘땅이 움푹 패다.⁴⁴⁾’라 했다.

『표유부』에 ‘在陽部筋骨之側，陷下爲眞.’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양경 또는 양부위의 혈들은 근육이나 뼈의 측면에 우묵하게 들어간 곳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楊繼洲 선생은 ‘陽部者，諸陽之經也，如合谷·三里·陽陵泉等穴，必取俠骨側指陷中爲眞也。⁴⁵⁾’라고 주를 달았는데 ‘指陷中爲眞也’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함중(陷中)’은 절순문안(切循捫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삼구양씨보사』와 그 구절인 「하수팔법구결」에도 ‘凡點穴，以手揣摸其處，在陽部筋骨之側，陷者爲眞。⁴⁶⁾’라고 했다.

또 『의학입문』 「침구편」에 ‘必先以左手，厭按所鍼策俞之處.’라는 구절이 있는데, 李梴 선생은 ‘陽穴 以骨則陷處 按之痠麻者爲眞。⁴⁷⁾’라고 주를 달았다.

당대 孫思邈의 『천금요방』에 ‘肌肉文理節解縫會宛陷之中及以手按之病者快然⁴⁸⁾’라 했다.

‘함(陷)’이라는 표현은 절순문안(切循捫按)해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함(陷)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보통 함중(陷中)으로 중(中)자와 같이 쓰인다. 또 ‘함(陷)’자와 ‘중(中)’자 사이에 ‘완완(宛宛)’을 넣어 함완완중(陷宛宛中)의 표현으로 쓰인 경우와, ‘자(者)’자를 더 넣어 ‘함자완완중(陷者宛宛中)’이라고 더욱 강조한 경우도 간혹 보인다. 정경 359혈 중 함(陷)으로 표현된 혈은 무려 144혈에 이른다. 이것은 혈위를 만져보아 우묵하게 들어간 곳이 정확한 혈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동맥응수(動脈應手)

『표유부』에 ‘在陰分鄰臟之間，動脈相應.’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음경 또는 음부위의 혈들은 틈이나 오금의 사이로 동맥이 뛰는 곳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楊繼洲는 ‘陰分者，諸陰之經也，如手心·脚內·肚腹等穴，必以筋骨鄰臟動脈應指，乃爲眞穴也。⁴⁹⁾’라고 주를 달았다.

『삼구양씨보사』와 그 구절인 「하수팔법구결」에도 ‘凡點穴，以手揣摸其處，… 在陰部鄰臟

42) 段玉裁. 說文解字注. 서울 : 大星文化社 : p.732

43) 尹喜伯. 漢韓 理想大玉篇. 서울 : 理想社. 1979 : p.693 : ‘沒也地隕’

44) 동아출판사편집국. 前掲書 : p.2090

45) 楊繼洲. 前掲書 : p.63

46) 楊繼洲. 前掲書 : p.159 : 凡下鍼，要病人神氣定，息數勻，醫者亦如之，切不可太忙。又須審穴在何部分，如在陽部，必取筋骨之間陷下爲眞 : p.168 :

47) 李梴. 前掲書 : p.300

48) 孫思邈. 前掲書 : p.896

49) 楊繼洲. 前掲書 : p.63

之間, 動脈相應.⁵⁰⁾라고 했다.

또 명대 『의학입문』 침구편에 ‘必先以左手 厭按所鍼榮俞之處.’라는 구절이 있는데, 李梴 선생은 ‘陰穴 按之有動脈應手者爲眞.⁵¹⁾’라고 주를 달았다.

또 『영추』 「경맥」에 ‘十二經脈者, 伏行分肉之間, 深而不見, 其常見者, 足太陰過於內踝之上, 無所隱故也. 諸脈之浮而常見者, 皆絡脈也.⁵²⁾’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맥과 혈위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영추』 「본수」에 ‘腋內動脈, 手太陰也, 名曰天府.⁵³⁾’라고 했다.

명대 吳崑의 『침방육집』에 ‘當刺之時, 必先以左手厭按所鍼榮脛之處, 彈而努之, 爪而下之, 其氣之來, 如動脈之狀, 順針而刺之.⁵⁴⁾’라 했는데, 이 구절은 『난경』 78년을 인용한 것이다. 이것은 손가락으로 피부를 눌러보아 맥동이 느껴지는 곳을 수혈이라고 한 것으로 절순문안(切循捫按)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조선 허임의 『침구경험방』에 ‘예로부터 손을 써 오던 방법은 아주 확실한데, 후세의 사람은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쓸데없이 혈자리의 위치를 잡는 데 힘 쓸 뿐, 동맥의 반응이 손에 나타는 것을 모르고 증세에 딱 맞는 혈자리를 잡지도 못하니 온갖 경혈에 함부로 침을 놓아 병의 원인을 없애지도 못하고 공연히 진기를 손상시킨다.’라 하여, 동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동맥(動脈)이라는 것이 정확히 지금의 해부학적인 동맥(artery)을 뜻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만 artery에만 맥동이 느껴지기 때문

에 비교적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동맥응수(動脈應手)는 절순문안(切循捫按)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맥은 중요한 혈위 표현 중 하나이다. 주로 손으로 만져 맥이 뛰는 곳이라는 뜻으로 동맥응수(動脈應手)라고 표현된 것이 많다. 때에 따라서는 동맥중(動脈中)으로 또는 동맥(動脈)으로만 표현된 것도 있다. 산맥중(散脈中)이라는 표현도 쓰였는데, 어제(魚際)의 『침방육집교석』 주석을 보면 ‘散脈 : 脈的散行部分, 卽表淺之毛細血管.⁵⁵⁾’라고 되어있다. 또 동맥함중(動脈陷中)의 표현이 사용된 혈들도 있다. 동맥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밑이라는 의미로 동맥하렴(動脈下廉)의 표현이 사용된 혈도 있고, 유맥미동(有脈微動)의 표현, 골함중동맥(骨陷中動脈), 동맥응수완완중(動脈應手宛宛中), 골간동맥(骨間動脈), 약중동맥(約中動脈), 동맥입흉(動脈入胸), 장후맥중(掌後脈中), 세동맥응수(細動脈應手), 청락맥(靑絡脈), 청락맥중(靑絡脈中), 횡동맥중(橫動脈中), 동맥완완중(動脈宛宛中), 동맥응수함중(動脈應手陷中) 등등 많은 표현이 사용되었다.

(3) 완완중(宛宛中)

완(宛)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설문해자주』에 ‘宛 : 屈艸自覆也. 上文曰輿, 宛也. 宛之引伸義也. 此曰屈艸自覆者, 宛之本義也. 引伸爲宛曲, 宛轉. 如爾雅宛中宛丘, 周禮琬圭皆宛曲之義也. 凡狀兒可見者皆曰宛然. 如魏風傳曰宛辟兒, 唐風傳曰宛死兒, 攷工記注窓小孔兒皆是. 宛與蘊. 蘊與鬱. 聲義皆通. 故方言曰宛蕃也, 禮記曰兔爲宛脾,

50) 楊繼洲. 前掲書 : p.159 : 如在陰分, 郟膈之內, 動脈相應, 以爪重切經絡, 少待方可下手. p.168 : ‘凡點穴, 以手揣摸其處, … 在陰部郟膈之間, 動脈相應.’

51) 李梴. 前掲書 : p.300

52) 洪元植 譯. 前掲書 : p.138

53) 洪元植 譯. 前掲書 : p.42

54) 吳崑. 前掲書 : p.219

55) 吳崑. 前掲書 : p.26

春秋籛露曰鶴無宛氣皆是.⁵⁶⁾라고 했고, 『동아새한한사전』에 ‘옴폭 패다. 옴폭 들어가다.⁵⁷⁾’라고 했고, 『이상대옥편』에 ‘둔덕⁵⁸⁾’이라 했는데 둔덕이란 ‘두두룩하게 언덕진 곳⁵⁹⁾’이고 ‘두두룩하다’는 ‘가운데가 솟아서 불룩하다⁶⁰⁾’는 뜻이다. 이런 ‘완(宛)’자가 합하여 ‘완완’이 되면 ‘부드러운 모양⁶¹⁾’이라는 뜻이 된다.

『표유부』에 ‘或伸屈而得之, 或平直而安定.’라는 구절이 있다. 양계주 선생은 ‘伸屈者, 如取環跳之穴, 必須伸下足, 屈下足, 以取之, 乃得其穴. 平直者, 或平臥而取之, 或正坐而取之, 或正立而取之, 自然安定, 如承漿在脣下宛宛中之類也.⁶²⁾’라고 주를 달았는데, ‘완완(宛宛)’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모양을 형용하는 것으로 절순문안(切循捫按)하여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송대 王執中의 『침구자생경』에 ‘自大椎下至尾骸骨二十一椎長三尺折量取膻穴或云第一頤更有大頤在宛宛陷中非有骨也.⁶³⁾’라고 『갑을경』을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 여기서 뼈가 아니라 완완한 곳이라는 것은 절순문안(切循捫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완(宛)으로 표현된 혈은 견우·기흉·삼리·상림·해계·정명·찬죽·용천·황골·노회·청회·솔곡·연액·중봉·곡천·기해·천돌·승장·요수·대추·아문·풍부 등 모두 22혈이다. 대부분 완완중(宛宛中)으로 묘사되어 있다. 황골에서는 완곡여양월중앙(宛曲如仰月中央)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때 완(宛)은 완완중(宛宛中)과는 다른 의미로 치골의 모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함자완완중(陷者宛宛中), 동맥응수완완중(動脈應手宛宛中), 동맥완완중(動脈宛宛中), 근리완완중(筋裏宛宛中)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4) 하(罅)

하(罅)는 틈, 빈틈, 갈라진 곳이라는 뜻으로 역시 혈위를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이다. 열결의 『침방육집교석』 주석에 ‘筋骨罅 : 指列缺穴在肱橈肌腱與拇長展肌腱之間, 橈骨莖突縫隙間.⁶⁴⁾’라 했다. 즉 하(罅)란 근이나 뼈가 만나는 틈을 표현하는 것이다.

하(罅)로 표현된 혈은 척택·열결·비노·견우·거결·상림·하림·완골·천정·태충 등 모두 11혈이다. 근골하함중(筋骨罅陷中), 양근골하중(兩筋骨罅中) 등으로 표현된다.

(5) 기육(起肉)

혈은 자체의 뜻이 구멍이라는 것인데, 특이하게 오히려 기육이 솟아 있는 곳에 있다고 표현된 혈들이다.

기육(起肉)으로 표현된 혈은 삼리·복토·기문(箕門)·낙각·육침·중려수·천료·이문·풍부 등 9혈이다. 육기(肉起), 기육(起肉), 기근(起筋), 육입기(肉立起)등으로 표현된다.

6. 본 논문의 한계

지금까지 학교나 임상에서 침을 시술할 때 혈

56) 段玉裁. 前掲書 : p.341

57) 동아출판사편집국. 前掲書 : p.549.

58) 尹喜伯. 前掲書 : p.203.

59) 이기문 감수.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 (주)동아출판사. 1990 : p.669.

60) 上掲書 : p.664.

61) 高大民族文化研究院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 高麗大學校 民足文化研究院. 2003 : p.2045 : ‘宛宛 : ① 굽은 모양. 구불구불한 모양. ② 부드러운 모양. 나긋나긋한 모양. 유약(柔弱)한 모양.’

62) 楊繼洲. 前掲書 : p.63

63) 王執中. 前掲書 : p.166

64) 吳崑. 前掲書 : p.26

위를 찾는 방법에 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취혈할 때 막연하게 혈위를 찾았던 것에서 벗어나 손의 감각을 이용하여 좀 더 정확하게 혈을 찾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절순문안(切循捫按)이라는 행위를 통해 혈을 찾아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둘째, 절순문안(切循捫按)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셋째, 같은 혈이라도 시술자에 따라 서로 다른 곳에서 혈을 느낄 수 있으며, 이때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당위성은 단순히 골도에 의하여만 취혈한 경우에 비해 골도와 절순문안(切循捫按)을 동시에 행하여 취혈한 경우가 치료효과 또는 치료율이 증가된다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이 연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는 절순문안(切循捫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검증 방법이다.

본 연구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관해 전문적인 연구가 없었고, 이제 이런 연구의 필요성을 이론적으로 검증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V. 결 론

본론과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혈위설명은 골도에 근거한 분촌 부분과, 절순문안(切循捫按)하여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절순문안(切循捫按)이란 손의 감각을 이용하여 혈을 찾는 방법으로, 손으로 혈위를 주의 깊게 만지거나 눌러 정확한 혈을 찾는 행위이며, 절순문안

(切循捫按)으로 알 수 있는 혈위의 설명은 함중(陷中)·동맥응수(動脈應手)·완완중(宛宛中) 등의 표현이다.

2. 절순문안(切循捫按)하는 설명은 기육이 풍부한 곳에 있는 혈들은 물론이고 기육이 천박한 곳에 있는 대장경의 이간·비경의 대도 등과, 심지어 조갑각에서 부추잎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정혈인 소장경의 소택·심포경의 중충 등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로 보아 절순문안(切循捫按)해야 하는 혈들은 그 혈이 있는 부위의 기육 두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은 모든 혈들에서 절순문안(切循捫按)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침구대성』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였고, 이 책에 나타난 12정경과 임맥·독맥의 359혈을 고찰한 결과 311개에 이르는 혈들에서 함중(陷中)·동맥응수(動脈應手)·완완중(宛宛中) 등 절순문안(切循捫按)과 관련된 표현이 있거나, 이런 표현이 생략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혈들(약 87%)에 절순문안(切循捫按)하여야 하는 설명이 있었고 이것은 모든 혈들도 절순문안(切循捫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절순문안(切循捫按)하는 것은 골도와 함께 정확한 혈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혈을 찾을 때 반드시 절순문안(切循捫按)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이지만, 이에 관하여 그 효과나 객관화 방법 등은 많은 연구와 실험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1. 강쇄빈. 경전침구학. 서울 : 一中社. 2000.

절순문안과 취혈의 관계에 대한 고찰

2. 高大民族文化研究院 中國語大辭典編纂室. 中韓辭典. 서울 : 高麗大學校 民足文化研究院. 2003.
3. 郭世余. 中國鍼灸學.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9.
4. 段玉裁. 說文解字注. 서울 : 大星文化社.
5. 동아출판사편집국. 동아 새 漢韓辭典. 서울 : 동아출판사. 1993.
6. 廖潤鴻. 鍼灸集成. 北京 : 中國書店. 1986.
7. 배병철. 東洋醫學大辭典. 서울 : 成輔社. 2000.
8. 孫思邈. 備急千金要方. 서울 : 大星文化社. 1992.
9. 楊繼洲. 校訂註解鍼灸大成. 서울 : 大星文化社. 1990.
10. 吳崑. 鍼方六集校釋. 서울 : 醫聖堂. 1993.
11. 王執中. 鍼灸醫學典籍大系 第8卷 鍼灸資生經. 大阪 : コノディック. 昭和54.
12. 尹喜伯. 漢韓 理想大玉篇. 서울 : 理想社. 1979.
13. 이기문 감수. 동아 새국어사전. 서울 : (주)동아출판사. 1990.
14. 이수홍·윤종화·김갑성. 양계주의 의학사상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1998 ; 15(1).
15. 李梴. 新校編註醫學入文(上). 서울 : 大星文化社. 1994.
16. 전국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편저. 도해 경혈학. 서울 : 정문각. 2002.
17.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 編著. 鍼灸學. 서울 : 집문당. 1988.
18.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醫史文獻編]. 서울 :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19. 許任. 鍼灸經驗方. 서울 : 圖書出版 鼎談. 1999.
20. 許浚. 原本東醫寶鑑. 서울 : 南山堂. 1989.
21.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素問. 서울 : 傳統文化研究會. 1993.
22. 洪元植 譯. 校勘直譯黃帝內經靈樞. 서울 : 傳統文化研究會. 1999.